



모두를 위한 평화를 바라는 ‘나와 우리’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시간은 곧 금이라니,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일에 금덩이를 뿌린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

런데 돈과 시간에 자기 수고까지 동시에 병행하라고 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할까?

잠깐, ‘NO’를 외치기 전에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



저보자. 여기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보다 생활이 넉넉하진 아니지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여유 한 칸을 마음속에 마련해 놓은 사람들, ‘나와 우리’의 활동을 통해 작은 수고를 대신하여 얻어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평화를 위한 열린 공간

1997년 청년을 넘어서나 그러나 중년은 아닌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대단한 시민운동가는 못 되더라도 무엇인가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이를 위해 최초에는 여러 단체를 탐방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금전적인 원조나 간단한 봉사활동 외에는 활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나와 우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씨는 “문턱이 낮은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네트워크가 저희의 기본 이념이죠. 사업 내용은 변화해도 기본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한다.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옹호되는 사회, 개인과 공동체·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지만 활동 방법과 주제, 범위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일본 시민단체와의 교류,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심포지엄, 강연회,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장애우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들과 함께 하는 답사, 영화 토론회, 아시아 네트워크, 버마 민주화운동 지원, 수많은 시민단체와의 교류사업 … 등등. 지금까지 해온 일들만 보아도 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란 어렵다. 또 그럴 이유도 이들에게는 없다. 굳이 범위를 묶어서 하고 싶은 일에 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열린 공간’,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곳을 향해 열려있는 그들이다.

대부분이 회사원이나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동시간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나와 우리’의 회원들은 자투리 시간을 내어 부지런히 활동한다. 일반 회원과 실무진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회원은 회비 납부, 일은 실무진들이라는 공식은 ‘나와 우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회의에 회원들은 자유롭게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 또한 예외 없이 회비를 납부해가며 활동한다. “거의 모든 사업이 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워요. 자기돈 내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작기 때문에 회원들의 요구가 곧바로 반영될 수 있고 또 간섭 없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죠.”

낮은 문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어 가는 단체’라는 표현답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기에 새롭게 사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베트남 풍니마을 위령비 건립사업을 위한 모금행사와 위령제(2004년 6월 19일)

고민한 일본분과가 중심이었지만 점차 발전하면서 분과, 독립된 이후에는 '세상 밖으로', '베트남과 친구 되기', 'Friends of Burma'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중 참신한 생각이 돋보였던 '세상 밖으로'는 안타깝게도 현재 잠정적인 모색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세상 밖으로'는 조선족 노동자와 여주 문화기행을 간다던지 혹은 장애인들과 제주도 갯벌 기행,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단풍놀이 등 한달에 한번 소외된 그룹들과 답사를 가는 행사였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년부터 순수 회비로만 운영해야했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들을 추슬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 분들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힘들게 일해 왔기 때문에 주말에는 정말 그냥 쉬고 싶으신 거예요. 청소년들의 경우 저희는 유익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다 보니 놀이공원 같은 곳을 더 선호했죠. 이렇게 서로 욕구가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에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물론 장애우들은 마지막까지 좋아했지만 그 즈음 비슷한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나와 우리' 또한 장애우 만을 위한 단체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나와 우리'는 특정분야를 위한 전문적인 단체, 이익단체를 지양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이기 위해서는 분야가 좁아지고 또한 전문가가 요구되며 지식의 수준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문턱이 올라가는' 일이 초래될까 염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내 안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특정 분야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는 '나와 우리'이지만 'Friends of Burma'는 버마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 교류하는 분과이기 때문에 알갭게도 현재 상황은 '베트남과 친구되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김정우 씨의 해명은 간단하다. "베트남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외에 특별히 베트남에 집중하는 곳이 없어요. 정신대 할머니들을 보면 그 오랜 기간동안 생생하게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래요. 그러니 한 곳 정도는 끝까지



베트남에서 위령비 건립 공사를 도와주고 있는 '나와 우리' 회원들

함께 해야죠.”

베트남과의 인연은 99년 일본 중군위안부 문제를 발표하기 위해 일본 사람들과 함께 베트남에 갔다가 우연히 베트남에서도 한국인에 의한 민간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진상을 알기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생존자들을 찾아가는 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지 일회성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과 함께 답사에 나섰다. 이 후 매년 '한-베 청년평화캠프'를 통해 베트남의 청년들과 함께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마을을 방문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외국인에게 민박은 허용되지 않기에 캠프를 허가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었기에 가능했으며 반응 또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좋았다고 한다.

함께 어우러져 집단 묘지를 만들고, 솟대를 세우고, 길을 놓고, 학교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저희는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밖에 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자, 우리도 같은 피해자겠죠. 그리고 민간인을 학살했던 군인들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인 책임

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베트남에서 위령비를 건립하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그 행위를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가 가져오는 우리 안에서의 책임과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어릴 적 우리들은 한번쯤 세계 평화를 외치며 악당을 물리치는 꼬마 영웅을 꿈꿨다. 그러나 다 자란 지금, 세계평화란 아이들의 놀이 주제 정도로 피식 웃음 짓거나 넬슨 만델라 혹은 마더 테레사쯤 되는 대단한 투쟁가, 혁명가 내지는 운동가만이 할 수 있는, 자신과는 삼천구만리쯤 떨어진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꿈꿀 수 있다면 어른은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은가. 평화와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와 우리' 처럼 자신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전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사회 속에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며 '우리'가 있다. '우리'를 돕는다는 것,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나와 우리 : www.nawauri.or.kr

〈서민숙〉